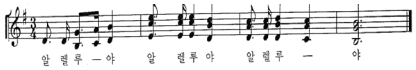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신부 : 이효언(펠릭스) (felixlhu@yahoo.com) 보좌신부 : 박창엽(파비아노) (fabiano@hanmail.net)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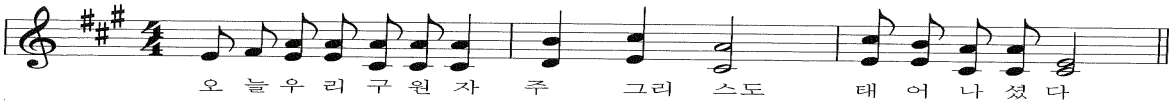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입당 성가 : 103 오늘 아기 예수
제 1독서 : 이사야서 9,1–6
화 답 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 2독서 : 티토서 2,11–14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 음 : 루카 2,1–14
봉헌성가 : 102 어서 가 경배하세
104 사랑하올 아기 예수
영성체송 :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성체성가 : 99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 귀여운 아기들
파견성가 :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성탄 대축일 새벽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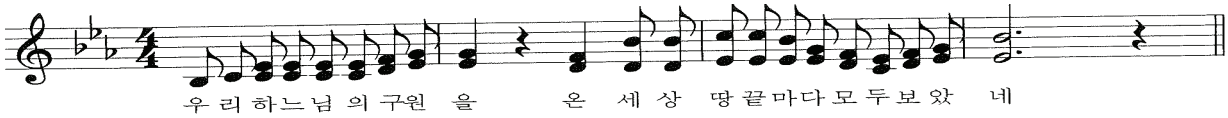
입당 성가 : 100 동방의 별
제 1독서 : 이사야서 62,11–12
화 답 송 : 오늘 우리 위에 빛이 비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셨네.
제 2독서 : 티토서 3,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복 음 : 루카 2,15–20
봉헌성가 : 112 구유에 누워 계시니
영성체송 : 딸 시온아,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찬양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성체성가 : 175 이 보다 더 큰 은혜와 104 사랑하올 아기 예수
파견성가 : 107 천사의 찬송

예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입당 성가 : 100 동방의 별
제 1독서 : 이사야서 52,7–10
화 답 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 2독서 : 히브리서 1,1–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 음 : 요한 1,1–18
봉헌성가 : 112 구유에 누워 계시니
영성체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성체성가 : 175 이 보다 더 큰 은혜와 104 사랑하올 아기 예수
파견성가 : 107 천사의 찬송



축
성 탄

세상에 참 생명의 빛과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교우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임 신부 : 이효언 펠릭스
보좌 신부 : 박창엽 파비아노
사목 회장 : 차주삼 버나드

2014년 성탄 메세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온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은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탄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기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 전체가 뜻밖의 참사로 인해 어려움과 슬픔을 많이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상처받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참사를 겪으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나 가치보다 세속의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겪은 슬픔과 고통 안에서 지혜롭게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기억과 희망의 수호자, 선조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불꽃을 전해주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시며, 과거 순교자들의 기억은 현재에서 새로운 증언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 기쁨과 사랑 그리고 설렘과 새로남에 대해 느꼈고, 특별히 자신을 낮추는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4박 5일간의 방한 기간 중 교황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 약하고 가난한, 지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지난 11월30일 '봉헌생활의 해'를 시작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통해 온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고 살아가는 수도자들과 사제품을 받은 사제들뿐만 아니라 세례로 축성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봉헌생활의 해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성실하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은 신자들의 봉헌생활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봉헌생활의 해를 지내는 목적은 과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현재를 살며, 희망의 미래를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기쁨을 보여주고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증거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오신 주님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을 믿고 모든 이를 화해시키는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또한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희망과 위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곳에 구세주께서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믿음과 화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함께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4년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밤미사	연	강대봉(마르코)		영원한 안식
	생	김민석(미카엘)	김대홍	주님 은총
		김윤지(크리스티나)		축생일, 은총
		서현재(안토니오)	김순배	주님은총, 축복
7시	연	김보필(요나단)	김윤상, 박루시아	김도호
10시	연	이윤구(루카), 정옥분(수산나)	이연복	영원한 안식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10시	연	김보필(요나단)	김도호	영원한 안식
		이경자(엘리사벳)	김현, 이정옥	
		이재복(니콜라오)	이달성	
	생	창세기반	김요안	건강, 평화
		박경자(글라라), 정은아(율리아)	박카타리나	영육간건강, 축복
		박정화(율리안나)	강경숙	
		우창명(요한), 박영설(세실리아)	강호신	